



◇ 지난달 31일 박시영 원지코리아컨설팅 부대표와 서삼석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장의 강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 전남도당 2017 제1기 지방자치 아카데미(원장 김영훈) 수료식에서 수강생들이 이개호 도당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 19만, 전국 100만 권리당원 시대 ‘활짝’

전남 전체당원 42만명 돌파...도민 4.4명 중 1명은 민주당원 지지율 고공행진 · 지방선거 승리 기대감으로 입당 러시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이자 ‘텃밭’인 전남에서 당비납부를 약정한 권리당원이 지난 10월 말 현재 19만3천여명을 돌파했다. 지난 19대 대선 직후 11만6천여명이었던 권리당원이 불과 5개월여 만에 7만7천여 명이 늘었다.
또 당비를 약정하지 않은 일반당원을 포함한 전남의 전체 당원 수는 42만3천533명(10월 말 기준)으로 대선 직후인 지난 5월 말의 36만4천736명보다 5만8천808명이 증가했다.

전남의 전체 당원 수는 전남의 인구수(3월 말 기준) 189만9천441명의 22.3%를 차지하고 있다. 최소한 전남 도민 4.4명 중 1명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 셈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의 정당지지율,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권리당원 배가운동에 예비 후보자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5개월 동안 전남 외에도 광주와

전북 등 호남권에서만 무려 30만여 명의 권리당원이 늘어 더불어민주당의 ‘100만 권리당원 시대’를 여는데 큰 기여를 했다.
지역위원회별 권리당원 현황은 순천이 가장 많은 1만4천490명이 증가한 3만544명 △고흥·보성·장흥·강진 2만3천279명(1만2천명↑) △담양·함평·영광·장성 2만6천991명(1만1천372명↑) △영암·무안·신안 1만9천331명(9천810명↑) 순이었다.
이어 나주·화순 1만8천156명(7천908명

↑) △여수갑 1만5천229명(5천935명↑) △여수를 1만5천236명(5천669명↑) △광양·곡성·구례 1만4천178명(4천492명↑) △목포 1만3천408명(3,653명↑) △해남·완도·진도 1만7천90명(2천556명↑)으로 나타났다.

도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들 간의 권리당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9월 초에는 입당원서가 거의 쏟아져 들어올 정도여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작업을 하는데 4주가 넘게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도당위원장 최고위원 취임

이개호 도당위원장(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지난 1일 호남권역 최고위원에 취임했다.
우리 당은 지난 2015년 혁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시·도당 위원장이 호선을 통해 최고위원을 맡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전국대의원대회 이후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이 6개월 간, 이어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이 3월1일부

터 8개월간 최고위원직을 수행한데 이어 1일부터 나머지 10개월은 이개호 도당위원장이 호남을 대표해 최고위원직을 맡게 됐다.
이개호 도당위원장은 광주·전남지역 민주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만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도당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함께 내년도 호남 예산 책기기 등 호남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드디어 열렸습니다
더불어 중앙당 후원회 오픈!
100만 당원 100년 정당을 이끌어갈 든든한 힘을 모아주세요!
<http://theminjoo.kr/give.do>

후원계좌 농협 301-0219-6642-11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후원회

후원센터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후원 시 유의사항

- 후원계좌 이체시 입금자명에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 (예. 홍길동700224)
- 후원금수증 발행을 위해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직업/후원금액/입금일 기재 후 010-6803-0388로 문자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국세청간소화서비스 등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개인 명의의 후원금 수령이 가능하며 법인,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고위**은 후원 할 수 없습니다.
- 중앙당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당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02-780-0387-8 F. 02-780-0383 E-mail minjoosup@gmail.com

더불어민주당 중앙당후원회
유원화진 | 이해찬

도당 지방선거 기획단 및 선출직평가위 출범

기획단장에 김종철 전 도의회 의장, 평가위원장에 조만형 동신대 교수 공약 및 정책이슈 발굴...선출직 여론조사·다면평가 등 실시

내년 6·13지방선거에서 핵심 공약 및 지역별 타깃공약 개발, 정책이슈 발굴, 전략기조 수립 등을 주도해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기 위한 전남도당 지방선거 기획단이 발족했다.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지난달 19일 도당 지방선거 기획단 단장에 김종철 전 도의회 의장(여수)을 선출하고 상임부단장에 강경순 전교조 전 순천시부장, 부단장에 이승훈 전 도당 정책실장(무안)을 각각 임명했다. 또 기획단 위원으로는 정환대·강우석 전 도의원과 김태석 서화종합건설 부사장을, 정책개발부위원장에 박제우 중앙당 해양수산특위 부위원



장을 각각 임명했다. 기획단은 지방선거 공약개발 TF, 도민소

통위원회, 지방자치 아카데미 등 3개 기구로 구성되며 공약개발 TF는 전남 22개 시·군의

주요 현안 분석을 통해 공약을 개발하여 정책선거를 주도할 계획이다.

도당은 앞서 지난 9월 제10차 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해 위원장에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평가위원으로는 △이상석 순천대 교수(사회교육) △박승일 변호사 △최지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지미경 변호사(도 행정심판위원) △조일근 도당 부위원장 △김태룡 도당 부위원장 △김향순 순천시법 조정위원 등을 각각 임명했다.

평가위는 지난 2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13일까지 차질없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8면>

평가점수는 총점 1천점이며, 주요 평가항목은 직무활동 및 공약이행, 청렴도, 여론조사 및 다면평가 등이다.

여수를 새 지역위원장에 정기명, 나주·화순 최종석(직대)

순천지역위원장은 서갑원 전 의원 임명

여수을지역위원회 새 지역위원장에 정기명 여수를 상임 수석부위원장(변호사),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최종석 도당 부위원장(나주·화순 상임부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온 여수을지역위와 지역위원장의 공직 임용에 따라 사고지역위원회가 된 나주·화순을 비롯한 전국 19개 지역위원장을 지난달 1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정기명 여수을지역위원장은 지난 5월 대선에서 주철현 직무대행(여수시장)이 단체장으로서 선거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상임수석부위원장 겸 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이끌었다.



정기명



최종석

최종석 나주·화순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역 상임부위원장 및 도당 부위원장, 대선 때 전남선대위 공동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한편 조강특위는 순천지역위원장의 경우 앞서 8명의 지역위원장 후보자 중 서갑원 전 의원, 김광진 전 의원, 노관규 전 순천시장을 경선 대상으로 선정해 무기명 투표와 면접을 거쳐 서 전 의원을 새 지역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지난달 27일 최고위 인준을 거쳐 당무위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서 전 의원은 제 17대, 18대 국회의원과 고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도당, 제23차 당원자격심사위

강진원 강진군수 등 전·현 선출직 공직자 5명 복당 허용

복당 신청자 526명 중 419명 허용, 보류 106명, 불허 1명

전남도당은 지난 1일 오후 제23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탈당 후 복당을 신청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6명 중 강진원 강진군수와 장재호 전 진도군의원 등 5명에 대해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반당원 탈당자 520명을 비롯한 총 526명의 복당 신청자 가운데 419명은 허용, 106명은 보류, 1명은 불허 처분을 각각 내렸다.

도당 당자위는 이날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보류 결정을 내렸던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난상토론 끝에 탈당 후 상대 당에 입당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장재호 전 진도군의원, 주장배·전승철 전 신안군의원, 김종혁 보성군의원 등 4명

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거, 복당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김관선 전 광주시의원(신안)에 대해서는 보류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광장 2017. 11. 8 (제20호)
발행인 | 이개호 **편집인** | 홍지영
발행처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무안 라-0002호 기타간행물 유통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403호
 TEL : 061-287-1219 FAX : 061-287-0415



전남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선거구획정위 출범, 내 달까지 획정안 마련 계획 혁신도시 인구변화로 나주 선거구 증설 불가피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9일 도청에서 '전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를 꾸려 위촉장을 수여하고 현행 인구를 반영한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한다. 이어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4개)과 22개 시·군 의회 의견을 수렴, 다음달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와 도의회,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11명으로 구성된다.

획정위는 인구와 읍·면·동수 비율, 중선거구제 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먼저 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평균인구 수 대비 60%를 초과한 '순천 라(해룡면), '무안 다'(삼향읍) 선거구는 조정될 전망이다. 또 지난 4·13 총선 당시 여수 갑에 미평동, 만덕동이 포함,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선거구 불

일치 지역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지역 선거구 증설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주는 지난 2014년 빛가람동이 신설되면서 선거구 증설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남 전체 기초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도내 다른 기초의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 무엇보다 인구 30%, 읍·면·동수 70% 비율로 결정한 현행 기준을 그대로 할지, 높일지가 최대 관건이다.

여기에 중선거구제 취지와 생활권 중심,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지, 2인 선거구를 3~4인 체제로 조정할 지도 논란이다.

획정위는 다음달 1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도지사는 선거구 의원 정수 등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다.

도내 인구는 10월말 현재 189만4천676명이며 읍·면·동수는 297개다.

22개 시·군별 의원수는 비례의원을 포함 여수 26명, 순천 24명, 목포 22명, 나주 14명, 광양 13명, 고흥 12명, 해남 11명, 화순·신안 10명, 담양·완도 9명, 무안·영암·보성·강진·영광·장성 8명, 곡성·구례·장흥·함평·진도 7명이다.

전남도당, 지방선거기획단 1차 회의 개최

6·13지방선거 압승 목표 실무적 지원활동 다짐



전남도당은 7일 지방선거기획단(단장 김중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견인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구성과 역할, 실무적 지원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사진>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높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공약 및 정책을 개발하고, 공조직 정비, 지속적인 인재 발굴 등 내년 6·13지방선거에서 압승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구체적 활동 목표를 설정했다.

기획단의 구체적인 활동 목표로는 지역별 타깃공약 개발, 정책이슈 발굴, 지역판세 분석, 및 전략 수립, 인재 발굴 및 영입,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 등으로, 지금까지의 지방선거 운영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방선거 압승을 견인하기로 했다.

특히 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단계부터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쳐 당의 추천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모든 분야 선거의 후보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발족한 기획단은 김중철 단장 이하 부단장 2명, 위원 3명, 지원국장 8명과 주임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지방선거공약개발 TF, 도민소통위원회, 지방정치아카데미를 두고 있다.

김중철 단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위해 좋은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 도민이 바라는 후보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바람직한 지방정부를 구성하는데 큰 역할로 기여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고 당부했다.

김중철 단장 외 부단장,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단장= 강경순 이승훈 ▲위원= 정환대 최신일 김태석 ▲지원국장= 변중섭 박재호 우호근 이경윤 이경진 임태순 조경호 박진권 ▲주임= 이세하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호남民意 분석할 ‘전남정책연구원’ 설립 가시화

공동위원장에 고석규·이건철·정기현씨...9.26 설립추진 준비모임

지역 맞춤형 어젠다 발굴 및 정책개발 전담 ‘씽크탱크’



각종 선거에서 나타난 호남민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분석과 효과적 대응 및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 ‘전남정책연구원’의 설립이 가시화됐다.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지난 9월 26일 오후 도당 회의실에서 가칭 ‘전남정책연구

원’ 설립추진 준비모임을 갖고 설립추진공동위원장에 고석규 전 목포대총장, 이진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 정기현 현대여성이동병원장(가나다순)을 선출했다.

전남정책연구원은 전남발전의 기본과제 개발을 통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각종 선

지에서 나타난 호남민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분석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설립된다.

또 지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정책정당으로의 역할 증대의 기능도 맡게 된다.

이날 준비모임은 이개호 도당위원장의 주

재로 고석규 전 총장을 비롯한 공동위원장 후보 3명과 민경진 아이쿱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 대표 등 직능·분야별 준비위원과 노인(이춘웅)·여성(윤명희)·장애인(이재한) 등 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준비위원들은 전남정책연구원의 비전과 목표로 △지역 맞춤형 어젠다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개발 지원으로 리더십 역량 강화 △아카데미 등 교육연수과정 개설 △당의 비전과 가치, 민생정책의 전파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10월 중 설립추진 준비위 구성 및 발족식을 마치고 내년 1분기 중 연구원 준비위 이사진과 정관 마련, 2분기까지 공식 발족할 계획이다.

도당 관계자는 “연구원은 전남도당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도당 산하 기관으로서 중앙당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의 분원 형태 또는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5·18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9월 27일 김대중센터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지난 9월 27일 광주로 출동해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텃밭인 호남의 민심을 끌어안았다.

특히 최근 불거진 호남 SOC 예산 홀대론과 관련, 당 지도부는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 호남 예산을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추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원내대표, 이개호 도당 위원장, 양향자·박범계 최고위원, 이춘석 사무총장,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추 대표는 예산협의를 앞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선 후 세 번째 광주 방문”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추 대표는 “헬기사격 등 전두환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태가 하나 둘 드러나면서 5·18의 진실도 확인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5·18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광주는 민주당 정권 창출의 진원지”라면서 “호남은 보수정권 9년 동안 철저히 소외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국가균형발전인 만큼 호남을 위한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답사를 통해 “추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든든하다.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꼭 보고 싶은 곳 **곶성** **쉼이 있는 곳**

Let's GokSeong

아름다운 심진강변을 감상하며 칙칙푹푹 추억의 소리 중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를 타는 색다른 경험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곳! 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심진강 천문대, 도깨비마을, 오토캠핑장, 태안사 등 신나는 체험 가득한 곶성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드세요.

흥기관사, 대항길 송림디리, 심진강 천문대, 심진강 침실숙지, 심진강 레일바이크, 도깨비마을, 도형사 오토캠핑장, 태안사 승강

곶성관광안내 061) 360-8379
곶성관광택시 1522-9053(사전예약)
www.gokseong.go.kr

전국 최대 연혁 50%를 차지, 노원방지 으뜸! **곶성 토란**

“민주당은 변화와 전진의 정당...기득권과 친일, 반칙의 역사 깨야”

안희정 충남지사, 강기정 전 의원...도당 지방자치 아카데미 특강

안희정 충남지사와 강기정 전 의원(광주북갑지역위원장)이 17일 전남도당 '2018 지방자치 아카데미' 특강을 위해 전남도당을 방문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제5강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강좌에서 지방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개헌을 통해 분권국가의 기본원리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제2국무회의 신설 △중앙집권적 통치 시스템을 자치분권으로 바꾸고 현장주의로 전환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 분배는 민주당, 성장은 자유한국당이란 이분법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24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 예산 퍼붓기, 박근혜 정부의 혁신경제 전략은 어떤 성장도 이루지 못했고, 일자리도 늘리지 못했으며, 마른 땅은 더 갈라지고, 진흙펄은 더 깊어졌다"며 분배와 성장의 동



시 추진을 강력히 주장했다.

안 지사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변화와 전진의 정당"으로 규정하고 기득권과 친일, 반칙의 역사를 깨고 끊임없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DJ와 노무현 정부를 잇는 3기 민주정부의 역점 과제로 저성장과 일자리 고갈,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 강기정 전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정치'란 주제의 특강에서 "창의성은 단지 무엇인가를 연결

하는 것"이란 애플 창업자 조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인용하며 연결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생산과 소비 행위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아이디어 등 독일의 제조업체 현장의 사례를 소개했다.

도당, 호남 SOC예산 정책홍보물 2만부 발간·배포

전남도당은 추석절을 앞두고 지난 9월 18일 호남 SOC예산 정책홍보물 2만부를 발간해 각 지역위원회별로 가두 캠페인을 통해 당원과 도민들에게 배포했다.

총 4쪽 분량의 정책 홍보물은 △시대착오적 '호남홀대론' 즉각 중단하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국민의당 정당지지를 5.7% 최하위 △SOC 호남홀대론, 과연 사실일까? △논평(호남 홀대론은 신지역주의 조장하는 구태정치) 등을 게재했다.

이어 △이개호 도당 위원장 '호남 SOC예산 홀대 반박회견 △민주당 도의원들' 전남 SOC예산 반영 건의안' 표결 거부, 국민의당 발의안 저지 △김현미 국토부장관, 국회 답변 통해 호남 SOC 홀대 반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이와 관



련, 지난 9월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SOC 분야 '호남홀대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신 호남홀대 프레임'을 만들어 정부와 호남을 이간질함으로써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과 개헌’ 10월 27일 목포대 특강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목포대학교 70주년기념관 국제컨퍼런스룸에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개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촛불 집회 1년을 뒤돌아보며 "촛불 혁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한 것으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사회 전반에 새로운 희망을 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사회·경제·환경의 세 바퀴

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하는데 이것을 조화롭게 굴려야 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헌법개정특위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 헌법은 30년 된 철지난 옷과 마찬가지로 사회변화 시대정신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고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이 퇴색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강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정과 끈기다. 집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사화 피는 굴비의 고향 영광 영광군 YEONGGWANG-GUN

칠산바다의 청정함과 기름진 땅의 선물!

<p>영광굴비</p> <p>영광굴비는 예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법성포의 제일가는 특산물입니다.</p>	<p>천년의빛 영광 영광군특산물</p> <p>정겨운 인심이 가득한 천년을 품은 빛 영광 사람들의 정직함이 만드는 다양한 맛! 자연의 풍미를 지닌 건강한 음식으로 영광의 향수를 전해 드립니다.</p>	<p>모싯잎 증편</p> <p>모싯잎 증을 내어 반죽하고 녹두로 소를 넣어 보통 증편보다 2~3배 크게 만들어 함께 나누었습니다. 빛이 맑고 은은한 향을 내어 영광의 특산물로 유명합니다.</p>
<p>찰보리쌀</p> <p>전국 유일의 보리산입특구 영광군에서 생산된 찰보리 쌀은 밥을 지을때 물이 불리거나 한 번 더 삶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p>	<p>찰보리쌀</p>	

‘최고의 지역 정치인재 양성의 등용문’

2017 제1기 도당 지방자치 아카데미 수료식...10. 31

전남도당 2017 제1기 지방자치 아카데미(원장 김영훈)가 지난날 31일 서삼석 영암·무안·신안지역 위원장의 11번째 강의 ‘지방자치의 이해와 실무’를 끝으로 막을 내리고 수료식을 실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이개호 도당 위원장과 김영훈 아카데미 원장이 7주 과정의 강좌를 모두 수강한 수강생 40여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한 뒤 일일이 기념촬영을 하고 격려

했다.

‘최고의 지역 정치인재 양성의 등용문’을 내걸고 지난 9월 19일인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역할’이란 주제의 이개호 도당 위원장의 첫 강의로 시작된 1기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50명 정원의 수강생 모집에 100여명 이상이 몰려 선착순 조기 마감됐다.

강사진은 안희정 충남지사와 강기정 전 의원, 김민석 민주연구원

장,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 정창교 서울 관악구 정책실장, 박시영 원지코리아컨설팅 부대표 등 11명의 특급 강사진이 참여했다.

도당은 아카데미 수료자 전원에게 지방선거 공천 심사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특전을 부여하며, 2기 아카데미를 오는 12월 중에 개설할 계획이다.

전남선관위, 15일 신안에서 ‘정당과의 한마음행사’

전남도선관위는 오는 15일 오전 신안군 압해도 송공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시·도당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Beautifulday - 정당과의 한마음 행사’를 개최한다.

도선관위는 이날 행사에서 송공산 트래킹 및 자연정화 활동을 펼친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선거 실천 협조를 부탁하고 각 당과의 유대 증진방안 등 정당 업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 “DJ 노벨평화상 취소 모의는 천인공노할 만행”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이명박 정권의 노벨평화상 취소 모의에 대해 “사악한 야수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으로서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개호 위원장(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권 노벨평화상 취소 모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란 제목의 전남도당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논평에서 “DJ 노벨평화상 취소 모의는 국가기관이 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천인공노할 만행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벨공작상이 있다면 단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이 보수단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DJ 서거 이후 노벨위원회에 노벨상 취소 청원서를 보내기로 했고, 이는 DJ 추모열기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된다는 판단 하에 고인을 헐뜯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성향에 따라 국민을 분류해 온갖 사찰을 해온 사찰 공화국이었고, 댓글부대까지 운영하며 야당과 반대세력들을 공격하고 탄압한 부도덕한 정권”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강진지역위 핵심당원연수대회 ...9월 16일 파머스마켓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회(위원장 신문식)는 지난 9월 16일 강진파머스마켓 대회의실에서 신문식 지역위원장, 이승옥 강진연락소장을 비롯한 350여명의 지역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연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개호 도당 위원장, 신문식 지역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전혜숙 중앙당 교육연수원장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이 ‘민주당의 비전과 혁신방안’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전혜숙 원장은 특강을 통해 “적폐청산을 바라는 촛불민심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동력이자 당의 지지원천”이라며 “나라를 바꾸고 국민 삶을 바꿔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의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오직 민생만 바라봅니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 추석 맞아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

이개호 도당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선출직 당원과 당직자 50여명과 함께 여수·순천지역 재래시장을 돌며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과 함께 정책홍보물 배포활동을 실시했다.

한가위를 앞두고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순천 옷시장과 여수 교동시장·서시장, 수산특화시장, 풍물

시장 등 모두 5곳에서 실시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송대수 여수갑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당직자 등과 재래시장을 순회하며 ‘추석맞이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과 함께 ‘오직 민생만 바라봅니다’, ‘호남 SOC 예산’ 등 2종의 정책 홍보물 배포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무안군

문화관광 콘텐츠도시

무안으로 떠나는 여행...

대자연과의 축제 속으로 떠나는 여행!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무안으로 여행을 즐겨요~~

검은비단 갯벌 인류와 공존하다
전국 최대규모 무안생태갯벌센터

낙지모양 등대 보러오세요~
일출, 일몰을 한번에 볼 수 있는 도리포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호담 항공우주전시관

한국의 다도를 중흥시킨 다성(茶聖)
초의선사 탄생유적지

하늘과 땅, 바다 모두 붉게 물들다
낙조가 아름다운 톱머리 해수욕장

바다와 바람에 온 몸을 맡긴다
윈드서핑의 최적지 홀통유원지

백련, 진흙 속에서 순백의 꽃을 피우다
동양 최대 백련 자생지 회산백련지

세계를 관광명소



▶ 김재무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장 당직 임명장 수여식



김재무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장은 지난 9월 18일 오전 광양부루나 호텔 컨벤션홀에서 광양시 당원 및 당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협의회, 여성, 청년위원회 및 각 지역별 회장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정환 광양읍협의회회장을 광양시협의회장단 단장에 임명하는 등 읍면동지역협의회회장 21명, 주형로 청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별 청년위원장 22명, 이형선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지역별 여성회장 5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시민이 열망하는 광양의 새로운 부활과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 주철현 여수시장

‘자치분권 여수선언문’ 전달받아



주철현 여수시장은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첫날인 지난달 26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실현에 대한 염원을 담은 ‘자치분권 여수선언문’을 전달받았다.

여수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경북도지사) 등 4대 협의체장은 선언문을 낭독한 후 이를 주철현 시장에게 전달

했다. 선언문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동판으로 제작돼 여수시에 영구 보관된다.

▶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

KTX 무안공항 경유 촉구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은 지난 9월 27일 민주당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민생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된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이날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 및 당원들과 함께 “호남

고속철 2단계 구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는 호남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무안공항 경유를 조속히 확정하고 활주로도 연장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 신우철 완도군수

수산양식분야 사업비 국·도비 등 총 226억 원 확보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2일 내년 해양수산사업 수산양식분야 사업비로 국·도비 등을 포함, 총 22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완도군은 3년 연속 매출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육상어류(광어) 양식장의 백신공급사업과 히트펌프 공급사업은 2017년 대비 30

여억 원이 더 증액돼 어류양식산업이 더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을철 전복먹이로 대체할 수 있는 곰피와 감태종묘를 확보해 양식어가에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등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신 군수는 “청정바다 양식산업의 메카로서 어·패류와 함께 해조류 양식산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비를 확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종석 나주·화순지역위원장 특별강연 및 당원단합대회 가저



최종석 나주·화순지역위원장(직대)은 지난달 28일 화순 하나옴스포츠헤터 만연홀에서 ‘특별강연 및 당원단합대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2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을)을 강사로 초청, ‘민주당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에 대해 강의를 들은

데 이어 족구대회를 통해 당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했다.

최 지역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창출에 가장 앞장섰던 나주·화순 당원들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받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형식 담양군수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특강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달 12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읍면 주민자치위원, 공직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최 군수는 특강에서 ‘왜 우리는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가?’란 화두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가

행정의 우선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조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헌법에 신설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개헌안 주요내용을 제시하며,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임을 헌법에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치입법, 행정, 조직, 재정, 환경, 복지강화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야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전략회의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 김준성 영광군수 낙월면민과의 대화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달 19일 군의 유일한 도서지역인 낙월면에서 2017 낙월면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매년 개최되는 낙월도를 벗어나 행정참여 기회가 적은 지역인 안마도를 찾아 지난해 군정성과와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비롯해 낙월면 현안사업 보고, 주민 건의 사항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 군수는 “주민들과 가감 없는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이번 낙월면민과의 대화를 통해 17건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다.

▶ 유근기 곡성군수

‘희망드림 복지반장’ 발대식 및 민관협력 활성화 교육 현장 방문



유근기 곡성군수는 지난 1일 읍면 복지반장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차마을 로즈홀에서 열린 ‘희망드림 복지반장’ 발대식 및 민관협력 활성화 교육 현장을 방문, 참석자들을 위로 격려했다.

유 군수는 발대식에서 “복지반장님들은 마을 복지 매니저로 마을의 어려운 주민들 목소리를 잘 대변해주고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민관 협치의 좋은 사례다”며 “군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발대식에 이어 투계터광산 나눔문화재단 강위원 상임이사의 ‘마을의 리더가 마을의 희망이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어떻게 하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평가 착수...12월 13일까지 완료

피평가자 자료등록 11월 15~30일까지 제출 단체장은 직무·여론조사, 의원은 의정·지역활동 비중 커

전남도당은 지난 2일 도당 선출직평가위원회(위원장 조만형 교수·동신대 경찰행정학과) 첫 회의를 열고 현역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에 대한 평가준비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또 여론조사 및 다면평가를 진행할 전문업체를 오는 6일까지 공모에 의해 선정할 계획이다.

당 선출직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은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평가 기본자료 양식에

맞춰 본인의 활동내역을 전산제출해야 하며, 평가위원들은 12월13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세부 평가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중앙당은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대상은 당 소속 전남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 145명이다.

평가에서 하위 20%의 점수를 받은 현역들의 경우 공천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의 10%,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의 10%를 이증으로 감점할 계획이다.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여론조사 30%에 더해 공약이행(20%), 자치분권활동(15%), 직무활동(35%) 등의 항목으로 채점한다. 광역·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의정활동(35%), 지역활동(35%), 다면평가(20%), 자치분권 활동(10%) 등이 기준이다.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했지만, 이번에는 감점만 한다.

총점은 단체장, 지방의원 모두 1000점으로 기초단체장의 경우 ▲직무활동 350점(리더십 105 + 소통역량 105 + 재정역량 70 + 도덕성 35 + 기부활동 17.5 + 수상실적 17.5) ▲공약이행평가 200점(대표 공약 5개씩, 정량 정성평가 각 20점) ▲여론조사 300점(인물경쟁력 210 + 직무평가 90) ▲자치

분권 활동 150점 등이다.

광역, 기초의원은 ▲의정활동 350점(입법성과 105 + 성실도 70 + 주민주인 기여도 70 + 도덕성 70 + 의회 임원 35) ▲지역활동 350점(주민소통 175 + 당무기여도 175) ▲다면평가 200점(의원 상호 140 + 당원 60) ▲자치분권 활동 100점 등이다.

단체장은 직무활동과 여론조사, 공약이행, 자치분권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지역활동, 다면평가 순이고, 세부적으로는 단체장은 인물 경쟁력 여론조사가, 지방의원은 당무기여도와 주민소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가결과는 향후 구성될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관된다.

신문식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장 '고흥 군민의 날' 참석

신문식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장은 지난 1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린 '고흥 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병중 군수와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군민과 향우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해 고흥의 희망찬 미래와 군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꿈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고흥'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와 타악 연주 등의 축하공연이 실시됐다.

신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고흥의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완식 민주당 전남도당 고문, 민주평통 부의장 임명

이완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문(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평통 간부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이완식 전남 부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 부의장 등 간부 자문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간담회에서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군건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통해 북핵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평화 통일을 위한 준비와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삼석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장 '영암 월출인의 밤' 참석



서삼석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영암군민회관에서 열린 '제42회 영암군민의날 기념 월출인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영암군청년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서 위원장 외에 유인학 전 의원과 진동평 영암군수, 김한남 영암문화원장, 각 지역별 향우회장과 향우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영암 군민과 출향인을 대표하는 영예의 '영암 군민의 상' 수상자로는 일 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김태호 재경 영암군향우회장이 선정됐다.



광주!

친환경자동차 타고 미래로 간다

2021년까지 3,030억원 투입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 자동차산업 전용단지 조성
- 선도기술지원센터 및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 친환경차 관련 핵심부품 기술개발,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 노사관계·적정임금·노동시간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이개호 도당위원장이 지난달 18일 나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전라도 천년 D-1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개호 도당위원장과 송대수 여수갑지역위원장, 김순빈 여수시의원을 비롯한 당직자와 당원 등이 여수 서시장에서 지난 9월 30일 추석절을 맞아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나주화순지역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석)는 지난달 28일 화순 하니움 스포츠센터에서 이학영 의원 초청 특강 및 당원단합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 지난달 25일 담양온천리조트에서 실시된 전남도당 지역위원회 간사직무연수에서 참석자들이 강덕원 전남선관위 지도담당관의 선거법 특강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개호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광주·전남지역위원장 등이 지난 9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김재무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광양지역 읍면협의회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별기고



서삼석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장)

호남을 말하려거든...

의 끈을 놓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가슴을 졸이며 말을 아끼고 있다.

문득 전라 광주를 뜨겁게 달구던 경선장과 유세 현장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열변을 토하던 그들은 예외 없이 호남으로 시작해서 호남으로 끝맺음을 했다. 그들이 토해내는 포효는 암울하고 참담한 호남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냈기에 무한한 신뢰와 박수를 보냈다.

그 막이 내리고 비로소 새 장이 열렸다. 지금 호남 사람들은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가며 제발 그때의 약속들이 공언과 미사여구가 아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고 있다.

속단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정부의 말을 듣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KTX 본선 무안공항 경유 확정이다.

이것은 전남도와 대통령의 전남 제1공약이다. 호남은 대통령의 약속을 믿기에 어떠한 군더더기도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신에 차있다.

흔히들 타당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서 칼질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깊은 함정과 모순이 있다. 호남은 공급으로 수요를 창출해 내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그 기준에 부합해 낼 수 없다. 국가재정법에도 분명히 지역균형에 관한 내용으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제외한다는 조항도 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흐리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무안공항은 무안군의 공항이 아니다. 전남을 넘어 호남,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항이다.

최근까지도 무안군이 외국자본과 손잡고 MRO(항공정비산업)를 유치하기 위해 실무적인 협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인들의 눈에도 무안공항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못해 씁쓸하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가 착공해서 ‘노무현 정부’가 완공한 무안공항, 수요가 없어 매년 적자 공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해 내기 위해서라도 KTX 본선의 무안공항 경유는 반드시 조

기에 확정되어야 한다.

넘치는 인천공항을 대체하고 한강 이남의 여객과 화물을 분산하는 효과와 이용객들의 편리한 접근성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해빙 무드에 편승해서 새로운 무안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수 년 동안 투자를 저울질해 왔던 기업인들이 러시를 이루고, 아이 울음이 그치지 오래인 호남 땅에 기적이 올릴 것이다.

경주와 평창 산골로 간 고속철도를 뒤 돌아 본다.

100년 아닌 10년만 내다봐도 망설이고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무안공항이 내 뿜는 미래의 시너지는 오늘 판단과 결정이 현명했음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남도 끝 가거도에서 한반도를 올려다보고, 세계지도를 펴놓고 무안공항의 가치를 재발견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대륙의 기운을 싣고 오대양으로 뻗어 가는 출발지이고, 지역균형과 진정한 분권의 가치 실현, 미래의 한반도를 견인해 나아가갈 최고의 적지가 무안공항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호남, 정치 말고 경제다.



이명박 정권 ‘노벨평화상 취소 모의’는 천인공노할 만행

사악한 야수정권의 민낯 드러내...즉각 구속수사 해야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이 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한 마디로 사악한 야수정권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국정원 전담 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보수단체 간부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DJ 서거 이후 노벨상 취소를 위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2009년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추모 열기가 형성돼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된다는 판단 하에 고인을 헐뜯는 심리전에 나섰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는 성향과 이념에 따라 국민을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온갖 사찰을 해온 사찰 공화국이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댓글부대까지 운영하며 야당과 반대세력들을 공격하고 탄압한 부도덕한 정권이었다. ‘노벨공작상’이 있다면 단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상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2017. 10. 9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계호

두근두근 흥미진진
더불어민주당 fun!
민펀
직접민주주의 정당을 위한 사상최초 정치 크라우드 펀딩 **“나는 민주당이다”**
당원이 투자하고 당원이 만드는 민주당리 **민펀 1호 프로젝트**
정발위 혁신콘서트
“나는 민주당이다”
직접민주주의는 토론과 투표입니다. 1백 명의 강사 양성. 1만 명의 토론 진행자 양성하면 전국에서 10만 당원의 일상 토론이 가능합니다.
목표액 5천만원 / 1구좌 5천원 계좌: 농협 036-01-131970 더불어민주당 ※납부등록 필수※ <http://tinyurl.com/minfun1>
<나는민주당펀딩>은 당원만 납부가능합니다. 비당원 및 납부등록을 하지 않은 입금액은 국고 귀속되오니 반드시 납부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본 구좌는 특별당비 납부로 처리되며 위 과정을 위한 예산으로만 집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10월 재정운영 보고

수입, 당비·보조금 외 지원금 등 3억9,925만5,256원
지출, 기본경비·정치활동비 등 8천678만5,861원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의 지난 10월말 현재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1,401만6,384원과 기관지발행사업 수입 489만5천원, 상급당부 보조금 외 지원금 722만1,872원 등 모두 3억9,925만5,256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도당은 이 가운데 조직활동비 5천614만1,771원, 인건비 1천965만1,770원, 정책개발비 345만원 등 모두 8천678만5,86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말 현재 지출 잔액은 3억1,246만9,395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지출기간 : 2017.10.01~2017.10.31)

구분	과 목	계	보조금외	경상보조금	
수입	전 년 도 이 월	314,016,384	287,897,819	26,118,565	
	당 비	8,142,000	8,142,000	0	
	기탁금(중앙당에한함)	0	0	0	
	후 원 회 기 부 금	0	0	0	
	보조금(중앙당에한함)	0	0	0	
	차 입 금	0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4,895,000	4,895,000	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계	0	0	
보조금외	상급당부	72,201,872	72,201,872	0	
		하급당부	0	0	
	계	72,201,872	72,201,872	0	
소 계	72,201,872	72,201,872	0		
그 밖의 수입		0	0	0	
합 계		399,255,256	373,136,691	26,118,565	
지출	선 거 비 용	0	0	0	
	기본 경비	인 건 비	19,651,770	19,651,770	0
		사무소 설치 운영비	7,539,040	7,539,040	0
		정 책 개 발 비	3,450,000	3,450,000	0
		조 직 활 동 비	56,141,771	56,141,771	0
		여성정치발전비	0	0	0
	그 밖의 경비		3,280	3,280	0
		합 계	86,785,861	86,785,861	0
	정 치 자 원 금	보 조 금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계		0	0		
보조금외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계	0	0			
소 계	0	0			
합 계		86,785,861	86,785,861	0	
잔 액		312,469,395	286,350,830	26,118,565	

재정 운영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도당은 권리당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투명하고 알찬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김현진 차장 ☎ 061)287-1219

도의회 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노선 확정 촉구



전남도의회는 지난 1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

전남도의회 57명 전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호남고속철 광주송정~목포 구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기획재정부의 근시안적 경제 논리로 진척이 더디다”며 “무안공항 경유를 반대한 채 기존선 개량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부 핵심 정책 기조인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서남권 이용객 편의 도모, 혁신도시 경쟁력 강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이 필수 조건”이라며 무안공항 경유 노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윤시석 의원은 “국가 기간 교통망인 고속철 건설은 경제성을 선행하기 전에 미래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한 신성장 축으로 삼아서남해안권 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 활동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태)는 지난 2일부터 3일間に 걸쳐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방항공대 등 7개소를 방문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 활동을 벌였다. <사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 경쟁력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추진’ 일환으로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주년을 맞은 촛불은 성숙한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기여정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오직 정의와 상식이 자리잡고, 민생과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그 날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양의 품격

대숲밭은 담양
표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밭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